

“방역수칙 준수 적극 동참”

익산시, 30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분 배부 시작
“기부콜센터 운영 활성화에 공공기관 마중물 역할” 당부

익산시가 오는 30일부터 4일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자에 대해 정액형 선불카드 배부를 시작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현동 익산시장은 27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자에 대한 배부를 시작하는데, 온라인 접수분이 약 14만 여건에 달하는 만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경찰서와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회적 거

리두기를 위한 줄서기, 발열 체크 등 현장 질서유지에 민전을 기하고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24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모두 마치고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온라인 접수분 배부를 위한 별도의 부스를 홀짝제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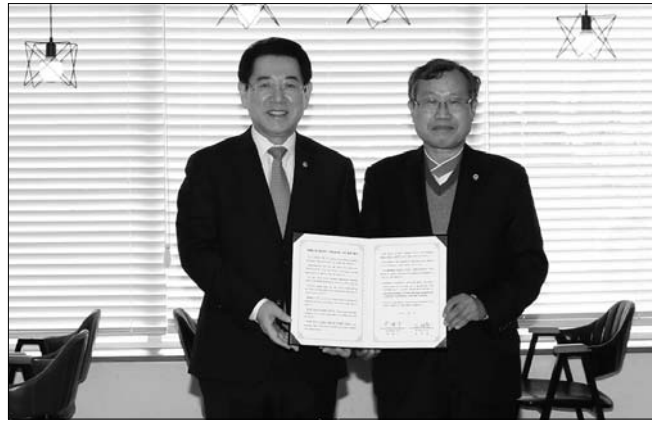
또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기부콜센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돕기 위해 익산시가 체계적인 기부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최초로 기부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앞으로 전화 1통으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지역 전반에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내구사에 파견된 의료진 9명 등을 포함해 수백사례들이 발생할 때마다 표창 및 감사장 수여로 즉시 그 공로를 치하할 것.’을 주문하고 “시 예산의 신속집행은 소상공인 지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 진작을 위해 예산집행을 최대한 높여 신속집행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통한 상생협력의 목적으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대 · 전남도, 방사광가속기 활용 협약

우수 연구인력 양성 · 산학연 협력 전용빌딩 구축도 합의

원광대학교 총장 박맹수와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통한 상생협력의 목적으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 전용빌딩 구축도 합의했다.

지난 24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원광대를 방문해 이루어진 이번 협약은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전남 나주 유치에 공동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는 상호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가 전남 나주에 유치되면 산학연 협력 전용빌딩을 구축하게 되며, 전라남도도 원광대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역량 강화 및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광대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과 함께 차세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협심 계획이다.

한편 방사광가속기는 화학, 생물, 의학 등 기초 과학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신약 2차전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되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초과학 우위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재, 부품, 장비 개발과 대학 및 산업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계획하고, 최근 과기부에서 구축사업 부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박맹수 총장은 “대학에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응용연구를 수행한다면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선진연구 결과 도출을 통한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나주시에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해산물의 맛 · 근대문화의 멋 한번에 즐긴다

군산시,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군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선정됐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총 733.8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산물 유통·박판 클러스터, 문화클러스터 조성, 폐철도·

해망골을 활용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등이며 지난 10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전라북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고시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현재 수산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수산물복합센터 건설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연계시켜 그 일원을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인근 주차장 부지 내 건설 예정인

혁신성장센터와 수산물복합센터를 일체보행로로 연결해 이때 발생하는 공간을 공연, 판매, 나조 조방 공간으로 활용, 소풍과 관광을 윈스톱으로 실현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C부지에는 문화공작소, 예술센터, 문화레지던시, 여행사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는 문화파크를 조성하여 예술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젊은 층 유입과 관련 일자리 창출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소방 119구조대, 재난대비 대응역량 강화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최근 일어나는 지진과 관련, 건축물 붕괴사고 대비 도시탐색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도시탐색 인명구조훈련은 지진, 테러, 붕괴사고 시 건물 잔해에 매몰되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도시탐색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거나 부상을 당한 구조대원을 탐색하여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훈련이다.

27일 전 구조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서 후정에서 붕괴사고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인 에어리프팅백, 내시경 카메라, 절단장비 등을 동원해 인명탐색 및 구조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 국내의 대형지진 및 테러사고 대응력 향상과 붕괴사고 현장에 첨단 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인명구조 탐색 기법에 중점을 두었으며 ▲붕괴건물 천공 및 파괴기법 ▲구조물 안정화 기법 ▲중량물 인양 및 하중인정화 ▲붕괴건물 표시체계 등으로 진행했다. 덧붙여 붕철 줄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구조대원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훈련도 이뤄졌다.

서상희 구조대장은 “붕괴사고의 위험은 지진과 공사장 작업 등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공공체육시설 새 단장 한창

군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장 중인 공공체육시설 새 단장에 한창이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전한 시설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에 이용객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맞춤형 시설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월 초 공사를 마친 수송공원 파크골프장 코스 확장 공사는 지난해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코스 확장 요구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총공사비 1억2천만원을 들여 당초 9홀에서 18홀로 확장 완료했다.

기존 단조롭고 부족했던 코스가 보완됨으로써, 각종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유치도 가능하게 되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또한,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가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안전확보에 중점을 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대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스피드벽 설치 등 사업규모가 확장되면서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과 실용성을 갖춘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중급자용 리드암벽 설치 3면(10개 코스) 등 등반암벽 2개 설치와 실내에 워밍업벽을 신규 디자인해 시공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내년 국비확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활동상황 보고회를 갖고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군산시는 27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강입준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중점 확보대상 사업에 대해 정부 등향을 분석하고, 사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에서 건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중앙부처별 예산 반영여부에 대한 동향 분석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향후 대응 논리 개발과 부처 설득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군산시 주요 확보대상 사업으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450억) ▲조선해양설치·운송 인프라 구축(250억) ▲배달의민서 온라인 종합 배달업 구축(19.3억)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PoL 490억) ▲군산형 일자리 창업모델 혁신창업포터구 구축사업(30억) 등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주민세 50% 경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 경감을 실시한다.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 정기분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의 경우 5만원 ~ 50만원을 차등 부과하는데 2020년 정기분 주민세를 50% 경감해 고지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전년 기준 1만4,0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달에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할 예정이다.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하고, 직접파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8월말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